

41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틀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
 42 만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
 43 내 아들이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
 44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
 45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
 46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헛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헛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

- 27:41/ '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': 마음 깊이 우러나는 분노(미워하여)로 인한 살해 계획.
 야곱이 죽을 때 형들이 요셉에 대해 두려워했던 마음(50:15).
 '아버지를 고틀 때가 가까웠은즉': 아버지에게 대한 공경-야곱은 품은 적이 없던 마음.
- 27:42-43/ '리브가에게 들리매': 리브가의 참견하기 좋아하는 성격과 어머니다운 태도로 인해 우연히 발견.
 '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': 리브가의 익숙한 전략-우연히 듣고 야곱에게 지시함
 '라반에게로 피신하여': * 도망은 야곱의 생의 모토. 야곱은 라반에게로 도망치지만 라반에게서 도망치게 됨.
 * 라반은 야곱에게 아내들을 주었지만 영속적인 피난처는 될 수 없음-에서와 같은 위험.
- 27:44-45/ '몇 날 동안': 리브가의 계획은 야곱이 '잠시' 머무는 것이었으나 20년 간 하란에서의 고된 노동이 됨.
 '사람을 보내어... 불러 오리라': 에서의 분노가 오랫동안 진정되지 않아 실현되지 못함?
 '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':
 * 야곱의 귀가는 리브가가 아닌 하나님의 주도하심.
 * 야곱이 하란을 떠난 것은 에서의 분노가 진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라반과 그 아들들이 분노했기 때문.
 * 이후로 리브가에 대한 언급이 없음으로 어떤 의미에서 리브가는 이날 아들 둘을 모두 잃었을 수도 있음.
- 27:46/ '내 삶이 싫어졌거늘': * 이삭에게 에서가 이방 아내를 얻었음을 불평-야곱을 위한 변명 거리.
 * 외부인에 대한 리브가의 깊은 증오를 표현.

2) 아내 수색(28:1-9)

1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
 2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
 3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
 4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
 5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

- 28:1-2/ '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이르되': 이미 승인 받은 축복을 다투는 의미가 아닌, 진정한 족장 축복의 수여.
 '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': 전형적인 모세 율법의 언어. 에서와의 대조.
 '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': 자신처럼 밧단아람에서 아내를 찾으라는 지시.
 '일어나... 가서': 즉시 가라-상황의 긴박성.
- 28:3-4/ '전능하신 하나님(엘 샷다이)': *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(17:1).
 * 후대에 족장들의 하나님의 성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 받음(출 6:3).
 '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':
 *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벨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현현으로 성취.
 * 창조의 강복과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반영.
 * 개인 야곱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공동체도 포함.
 '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': 땅에 대한 약속.
 '내가 거류하는': 야곱은 가나안 태생이었음에도 외지인처럼 묘사.
- 28:5/ '아람 사람': 야곱/이스라엘이 이웃 아람 사람들과 일찍이 가졌던 종족 관계를 보강하는 것(신 26:5).

6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
 7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아람으로 갔으며
 8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
 9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옷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

- 28:6-8/ '에서가 본즉... 축복하고, 에서가 본즉...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':
 - *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으며 반면 에서의 혼인을 이삭을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에서가 보았음.
 - * 매번 이삭 (및 야곱)을 주도한 것은 리브가였지만 에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함.
 - * 자신의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이 아버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음.
- 28:9/ '이스마엘의 딸이요... 아내로 맞이하였더라':
 - * 부모의 바람을 따라 친족과 결혼했을 가능성-이삭의 편인 친족과 결혼.
 - * 결과적으로 버림 받은 자손들의 결합 - 두 광야 종족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살던 야곱의 후손과 대립.

(4) 베엘의 강복 약속 (28:10-22)

중요내용

- * '돌베개'에서 '돌기둥'에 이르는, 가장 기념할 만한 예배 장소가 된 경위를 설명.
- * 야곱의 사기꾼으로서의 불명예를 이 사건들이 대신하게 됨.
- * "어떤 장소가 성지가 되고 돌이 제단이 되고 도망자가 순례자가 된 경위: 하나님이 은총으로 자신을 계시하심.
- *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아브라함의 전철과는 반대로, 20년 후 야곱이 스스로 자초한 추방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예고하는 엄숙한 서원으로 끝남.
- * 야곱의 족장 약속의 연속성을 세우고 야곱의 불명예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완전한 은혜를 선포.
- * 주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능가하여 야곱이 생존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번성하여 돌아올 것을 확증.
- * 야곱은 협상하기를 좋아하는 인물로서 하나님과 서원할 것을 제안 - 족장 중 유일한 서원.
 -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시험.
- * 야곱은 돌아올 때 브니엘의 '사람'과 씨름하여 기회를 확실히 이용하지만 에서를 속였던 그 사람에게서 변화를 겪음.
 - 밧단아람 이후의 기사는 가진 것 없는 자가 어떻게 부유해지고 사기꾼이 어떻게 도덕적 변화를 겪었는지 서술.
 - 야곱은 자신이 철저히 주님의 자비에 의존하고 있음을 깨달아 자신의 오만한 마음을 밧단아람에 두고 나올 것.
- * '베엘'이라는 장소는 일찍이 아브라함이 지나가면서 예배했던 기억을 촉발시킴.
 - 야곱의 꿈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밤의 환상을 떠올리게 하고 (15:12, 17), 주님의 출현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을 돌아보게 함.
 - 하나님을 규정하는 관용 표현(13절)은 야곱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신현을 회상하게 함.
 - '땅과 후손을 주겠다'는 약속은 요소마다 13:15-16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표현과 정확히 같음.
 - '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'는 약속은 모든 측면에서 12:3의 관용 표현을 정확히 반복.
 -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겠다는 약속(15, 20절)은 이삭의 여정을 반영(26:3, 24).
 - 야곱이 알았던 두려움(놀라움, 17절)은 야곱의 조상들이 겪은 전형적인 두려움을 반영(15:1; 26:24).
 - 십일조를 바치겠다는 약속의 서원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보인 충성과 맥을 같이함.
- * 창 28:10-22은 밧단아람에서 돌아와 베엘에서 받은 약속을 성취할 미래도 내다봄.
 - 라헬의 발견: 또 하나의 돌(29:2-3).
 - 베엘의 체험은 야곱이 돌아온 이유를 설명(35:1, 3, 6-7).
 - 야곱의 귀환은 베엘에서 체험한 또 다른 신현과 제의 행위로 절정을 이룸(35:9-15).
 - 야곱은 다시 '하나님의 천사'들을 발견하고 이곳을 '하나님의 진영'으로 인정.
 - 밤에는 하나님을 만나 이곳의 이름을 베엘에서 느낀 놀라움과 같은 감정으로 '브니엘'이라고 이름 지음.
 - 하나님의 임재, 곧 '이삭의 두려움'은 라반에게서 야곱을 보호.
 - '브엘세바' 언급은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날 때 예배한 장소를 미리 가리킴(46:1, 5).
 - 베엘의 신현도 애굽에 있을 때에 야곱으로 하여금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게 했던 기초 사건으로 기능 (48:3).